코로나19 재확산에 제주 상인들 '한숨'

8월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7월보다 10.4%p 하락
전통시장 지수도 ⬇… 재난지원금 사용종료 등 영향

최근 사용이 종료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인해 제주지역 경기가 침체되면서 상인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1일 소상공인진흥공단의 '2020년 8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경기 체감 지수는 67.6, 49.2로 각각 전월 대비 0.5p, 6.5p 하락했다. 9월 경기 전망 지수는 소상공인이 94.1, 전통시장 95.2를 기록했다.

제주지역 소상공인 경기 체감 지수는 전월 대비 10.4p 떨어진 63.1을 기록하며 전국 최고 하락률을 기록했으며, 전통시장은 70.2로 전월보다 7.5p 하락했다. 또한 9월 경기 전망 지수는 소상공인 95.5, 전통시장 98.9로 나타났다.

제주지역 경기 체감 지수는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기 시작한 2월과 3월 20대를 기록하며 바닥을 찍었다. 반면 제주도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에는 경기 체감 지수가 소상공인 87.0, 전통시장 107.4로 크게 회복됐으나, 최근 지원금 사용 기간 종료되고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로 인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여름 휴가 기간 성수기 특수를 기대했던 상인들은 가게 운영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제주시 서부두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이모(30)씨는 "여름 성수기를 맞아 8월 중순까지는 손님이 꽤 많이 왔으나, 코로나19가 다시 퍼지기 시작한 뒤로는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현재 매출로는 인건비도 부담돼 일부 직원들을 쉬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 구좌읍에서 소품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38·여)씨는 "직원 1명과 같이 가게를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혼자하고 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여서,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1~2주 동안 가게 문을 닫은 뒤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전국택배노조 "제주도민 과도한 특수배송비 부담"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제주지부는 1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민들이 과도한 특수배송비(도선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적정 도선료 입법운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택배노조는 "제주도민들은 육지보다 5~9배에 달하는 도선료를 부담하고 있다"며 "택배시장의 약 90%를 독과점하고 있는 재벌 택배사들이 마음대로 도선료를 붙이고 가격을 정하고 있다. 또 국회는 택배산업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정부 관련 부처는 이 문제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도민과 함께 택배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적정 도선료 입법운동'을 벌이겠다"며 "10월 31일까지 제주도민의 온·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펼쳐나갈 것이고, 노동조합·농민단체·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일출봉 배경으로… 카이트서핑 제9호 태풍 마이삭 영향으로 비가 오락가락한 1일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해안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카이트서핑을 즐기고 있다. 강희만기자

서귀포시 여성 9만명… 산부인과 전문의 9명

제주 전체 활동의사는 1182명… 제주시 996·서귀포 186명

제주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2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6월 기준으로 전문의와 일반의를 포함한 제주지역 활동 의사수(전문의+일반의+인턴/레지던트)는 제주시가 996명, 서귀포시 186명 등 총 11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00명 당 활동의사 수는 제주 전체 인구 67만1913명 기준으로 총 1.76명이다. 제주시(인구 49만772명) 지역만 별도로 보면 2.03명으로 2명이 넘지만 서귀포시는 1.03명(인구 18만1141명)에 그친다.

제주지역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수는 전국 250개 시군구 평균 1000명당 의사수 2.08명에 다소 못 미치는 수치다. 1000명당 의사수(2.08명)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는 전국적으로 192곳으로, 전체의 76.8%를 차지하고 있다. 1000명당 활동의사수가 1명도 안되는 시군구는 45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전문의 수에서도 격차가 있었다. 제주시는 내과 139명, 신경과 20명, 정신건강의 35명, 외과 59명인데 비해 서귀포시는 내과 24명, 신경과 3명, 정신건강의 4명, 외과 12명이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제주시는 54명이지만 서귀포시는 9명으로 대조를 이뤘다. 서귀포시 여성인구는 8만9577명으로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 비율이 0.1명에 불과했다. 제주시는 여성 인구 24만4749명으로 1000명당 전문의수 비율이 0.22명이다.

소아청소년과도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인구가 3만218명인 서귀포시는 전문의가 9명에 불과해 인구 1000명당 0.3명꼴이다. 제주시(소아청소년 인구 9만3770명)의 소아청소년 전문의 수는 62명으로 천명당 의사수 0.66명이다.

국회=부미현기자

제주 국제학교 '귀족학교' 오명 벗나

교육청 2021년 평가 계획
지난 2018년 평가 당시
'사회적 약자' 소홀 지적

제주도교육청이 영어교육도시 소재 4개 국제학교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3년 전 평가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지원이 소홀하다는 지적으로 나온 '귀족학교'라는 오명을 떨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021년 국제학교 평가 기본계획'을 수립, 한국국제학교(KIS), 노스런던컬리지엇스쿨(NLCS) 제주, 브랭섬홀아시아(BHA), 세인트존스베리 제주(SJAJ) 등 4개 학교에 안내했다.

이번 평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3년 주기로 도교육청이 실시하는 것이다. 목적은 국제학교 설립 목적 달성 및 운영의 효율화 도모 등이다.

지난 2018년 진행된 평가(2017년 개교한 SJAJ는 제외)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KIS는 2015~16학년도에 사회적 배려 대상자 특별 전형으로 1명을 선발한 것 말고는 실적이 없었으며, NLCS 제주와 BHA는 특례 대상자에 대한 특별전형 규정 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장학금 역시 KIS를 제외한 나머지 2개 학교는 '지원액 확대·장학금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에 이어 ▷2021년 5월 평가위원회 위촉(위원장 1명 포함 총 7명) ▷8월 세부추진계획 수립 ▷9~11월 지표별 서면평가·국제학교 관계자 면담 등 현장 방문 ▷12월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공개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제학교의 평가 결과는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PC방·노래연습장 등 방역 수칙 점검 강화

제주시, 1900곳 대상

제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도내에서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고위험시설인 PC방과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1900여곳을 대상으로 방역 수칙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 점검 결과 제주시내 PC방과 노래연습장에서는 출입자 명부 작성과 체온 측정 등이 잘 이행되고 있었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매장에 입장한 후 마스크를 벗어버리거나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앉아 앞으로 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또 시는 종교시설 571곳에 살균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지급하는 한편, 주일 예배가 이뤄지는 교회를 중심으로 체온 측정과 참석자 명부 작성 이행 여부를 살피고 있다.

아울러 시는 체육시설 514곳 가운데 무도학원 23곳, 체력단련장 30곳, 체육도장 30곳, 당구장 24곳 등 상대적으로 방역에 취약한 133곳을 전담하는 5개반을 편성해 지도하고 있으며 특히 줌바, 태보, 스피닝 등이 이뤄지는 고위험 자유업종에 대한 점검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방역 수칙 이행 여부를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올레길 편의시설 전수 점검

제주시는 이달말까지 관내 올레길에 설치된 모든 편의시설물을 정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점검을 위해 관광진흥과장을 반장으로 한 올레길 기동점검반을 편성했다. 현재 올레길 13개 코스(211㎞) 중 5개 코스, 77.6㎞ 구간에 설치된 안내표시물에 대한 정비가 완료됐으며 이달 말까지 나머지 시설물도 정비한다. 또 올레길 주변에 있는 시설물 중 정비가 필요한 화장실과 정자 등은 관리부서에 통보해 점검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레길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탐방객들의 편의를 증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제주솔라에너지"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젊은 열정을 찾습니다

2020년 하반기 사원모집

모집기간 2020년 8월 ~ 채용시까지 수시 모집
지원방법 워크넷/이메일/방문/우편으로 지원서류 제출
지원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모집직종
태양광 발전설비 시공 및 A/S 기술자
- 경력자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 팀단위 협력 파트너(하도급) 별도 상담
전기 및 토목 분야 기술자
- 공사/설계/공무/인허가 경력자 우대
- 해당분야 자격증/경력수첩 보유자 우대

주택용 태양광 보조신청 접수
○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 추가접수중
○ 주택용 태양광 3kW 공사비 50% 보조
○ 자부담금 251만원
○ 선정방식 : 선착순 (예산소진시 종료)
지금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및 AS전담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